

홈 > 뉴스 > 특집 > 기획

[테마파크, 지역의 화수분인가] 2. 국내 테마파크와 지역사회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

15만명 고용·11조8000억 생산효과

2012년 06월 04일 (월)

진종인



▲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 최고 글로벌 테마파크인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USKR)' 조감도.

내년 3월 경기 화성 그린시티서 착공... 연 750억 세수 증대

비싼 입장료 부담... 아시아 경쟁적 건설로 포화상태 우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 최고 글로벌 테마파크인 '유니버설스튜디오코리아리조트(USKR)' 조성사업이 지난 2007년 화성시, 수자원공사, USKR컨소시엄 등 관련 기관·업체와의 MOU체결 이후 5년여만에 본궤도에 진입했다.

경기도 화성시 송산 그린시티에 조성예정인 USKR사업은 지난해 부지가격 협상을 마무리한데 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중인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 거점사업으로 선정되면서 2016년 개장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서해안권 관광자원의 체계적 개발을 위해 오는 2017년까지 경기도와 충남, 전북, 전남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지난 2008년 사업에 착수한 정부는 4년차인 올해 중간평가를 가졌으며, 변경된 계획안에 USKR사업을 거점사업으로 포함시켰다.

지난 3월에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며, 행정안전부 중앙투융자심사까지 마쳐 국비와 지방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본 요건을 갖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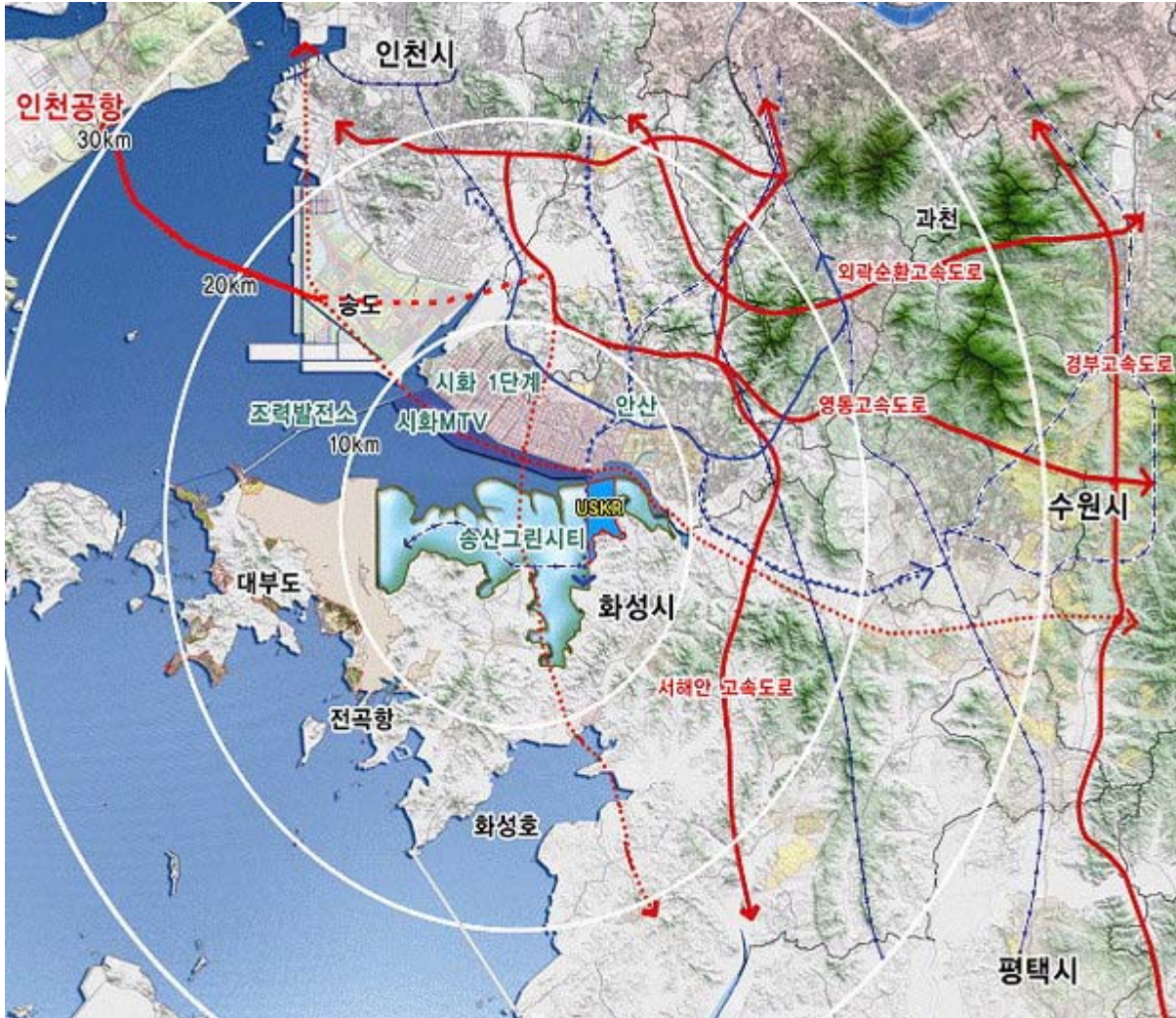
이에따라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일 USKR조성사업에 기반시설 건립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합동기업투자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5조200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USKR 사업비 가운데 관광단지 내 공공도로, 상하수도시설 및 오수처리시설 등의 기반시설 공사비로 4400억여 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공공도로와 상하수도 건설 등 공공기반시설은 정부와 경기도, 화성시가 분담해 조성하고 나머지 기반시설은 사업자 시행자인 USKR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투자하게 된다.

이에앞서 지난해 7월에는 부지가격을 놓고 이견을 보이던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업시행자인 USKR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간의 부지가격 협상이 5040억원을 기준가격으로 결정되면서 마무리됐다.

양측은 본계약 체결때 1500억원을 일시에 납부하고, 잔액 3540억원은 5.5%의 이자율로 10년 동안 분납하는데 합의했다.



▲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USKR)’가 들어설 경기도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오는 9월 양측이 토지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내년 3월 중에는 공사를 착공할 수 있게 된다.

자본금 266억원에서 120억원을 증자한 USKR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계획대로 지난해말 땅값 5040억원 가운데 계약금으로 50억원을 납부했다.

지난 2007년11월 유니버설 스튜디오 유치에 성공한 경기도는 국내 유수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자 모집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지난 2009년 롯데그룹과 접촉하면서 지연되던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

경기도는 USKR조성사업을 통해 연간 직접고용 1만1000여 명을 포함한 15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유니버설스튜디오 코리아 리조트를 건설할 때는 4만2000명 고용과 3조4000억원의 생산효과, 운영 때는 10만8000명의 고용과 8조4000억원의 생산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는 중국 등 동남아 관광객을 비롯해 연간 1500만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국가 서비스

산업 및 관광산업 전반에 걸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한국토·도시학회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 방문객의 글로벌테마파크 방문율은 42%로 추정되고 있으며, 중국 관광객은 절반이 넘는 55%에 달하기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USKR사업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가 11조8000억원에 달하고 내수측면에서도 전국적으로 10조원, 경기도에 2조3000억원의 민간소비지출 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연간 750억원 이상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등의 세수 증대도 기대고 있다.

경기도청 김진문 USKR조성팀장은 “싱가포르에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개장한 후 외국인 관광객이 20% 정도 증가하고 주변서비스 산업도 동반성장했다”며 “USKR사업을 통해 경기도는 물론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것은 물론 국가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글로벌 테마파크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부지문제는 해결됐지만 수익성 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의 입장료는 5800엔(7만2000원)으로 국내 테마파크 입장료의 2배가 넘는다.

이와 비슷한 가격으로 USKR 입장료가 매겨지면 가족단위(4인 가족) 입장객은 30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기름값과 외식비용, 시설이용료 등을 합하면 경쟁력을 갖기 힘든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디즈니랜드와 유니버설스튜디오가 최근 아시아에 경쟁적으로 테마파크를 건설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디즈니랜드가 일본에 2곳, 홍콩에 1곳을 운영중이며, 유니버설스튜디오도 일본 오사카에 이어 지난해 싱가포르에 오픈하면서 시장이 포화상태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아시아지역의 비슷한 컨셉을 가진 테마파크를 찾기 위해 굳이 한국을 방문하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주요 고객인 어린이와 청소년의 비율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것이다.

지난 2009년 기준으로 유엔이 186개국 인구현황을 조사한 것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은 보스니아-

헬체고비나(1.21)에 이어 전세계에서 두 번째(1.22)로 낮다. 2050년이면 현재 4800만명인 인구가 4410만명으로 줄어 들 것 이란 전망이다.

이같은 우려를 반영해 전문가들은 “USKR과 연계한 해양문화관광, 역사생태체험, 해양레저스포츠체험 등의 관광상품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좋은지역관광연구소 조의영 소장은 “생태로봇테마공원, 해바라기를 활용한 선플라워 축제, 친환경 미래레포츠공원 조성 등 창의적인 관광상품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진종인·김여진



▲ ‘유니버설 스튜디오 코리아리조트(USKR)’ 부지 예정지

유니버설 스튜디오란

미국에서 시작된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하이테크디지털 영상으로 무장하고 3D나, 4D영상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흥미를 유발시키는 테마파크다. 레고랜드가 3세~12세 어린이와 가족들을 주타깃으로 하는데 반해 유니버설스튜디오는 타깃층의 제한이 없다.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동측부지 일원 420만여㎡(127만평) 부지에 들어서는 ‘유니버설스튜디오코리아리조트(USKR)’는 워터파크, 골프코스, 관광호텔, 콘도, 씨티워크, 복합쇼핑센터 등을 포함하는 동북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 테마파크로 조성되기 때문에 부지만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한다.

축구장 50여개 규모로 오사카 유니버설스튜디오의 7배, 싱가포르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6배가 넘는

아시아 최대 규모로 건설될 유니버설스튜디오 관광단지 는 롯데그룹을 중심으로 포스코건설 등이 약 3조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테마파크를 우선 개장한 후 테마호텔, 프리미엄 아울렛, 대형마트, 워터파크, 콘도미니엄, 18홀 규모의 골프장 등 종합복합 타운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이 꼽는 글로벌 테마파크인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올랜도, 일본오사카에서 운영중이며 싱가포르 센토사는 지난해 개장했다.

© 강원도민일보(<http://www.kado.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인쇄하기](#)[창닫기](#)